

50 Photographers



초대사진가 50인의 사진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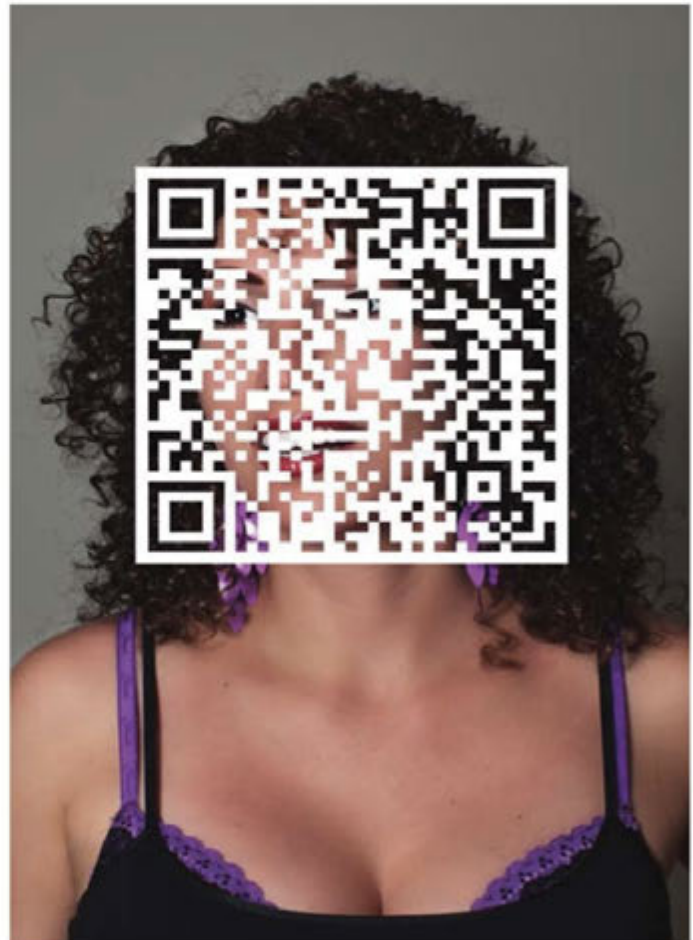
# 5월이 오면

전시에 대한 갈증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면 여기 주목할 것.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는 2020년 대한민국국제포토편집페스티벌은 이런 목마름을 단번에 해소시켜 줄 것이다. 글 | 월간사진편집부



Lais Pontes, 'Marie-Louise's Head' (2012), from 'Marie-Louise' series. June 14, 2012 at 11:45am - 684 #12

She's French. Carmen, she is Spanish. Marie-Louise, false teacher. She is a cool chick, happy and sure of herself. She's sexy and shows the legs every when she doesn't let legs. She's come a long way from Marie-Louise and is grateful for what she has. She is single, she doesn't need men and won't date for her own benefit or for convenience. She has learned that life is too tough to take it seriously.



## 주제전 참여 작가 1 레이스 폰테스(Lais Pontes)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과 소셜 미디어 속 캐릭터들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브라질 출신 사진가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가상 플랫폼을 이용한 사진 작업을 하면서 가상 캐릭터들의 관계를 탐구한다. 가상적 관계라는 커다란 주제를 통해 관람객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연결된 일련의 작업을 선보인다.

한동안 국내 전시들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미뤄지다 보니, 감성충전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업그레이드해줄 반가운 전시 소식이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20년 대한민국국제포토페스티벌이 그것.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국내 사진가는 물론 해외 사진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올해 페스티벌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관계의 지평'이다. 미국, 레바논, 브라질, 러시아 출신 사진가들이 놀라운 통찰력으로 다양한 '관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사진을 통해 풀어낸다. 이번 주제전의 총괄 기획을 맡은 양정아는 "주제전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

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또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진가들의 시각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는 소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제1, 2, 3전시실을 모두 사용하는 만큼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주제전 외에도 다양한 특별전과 함께 형형색색 전시를 함께 선보인다. 사진페어 형태로 열리는 '코리아 포토'는 관람객들에게 사진 컬렉션의 기회와 즐거움을 선사하며, 뷰파인더 전시인 한국성의 모색, 초이스2020, 시대의 초상전에서는 국내 신진 작가와 기성 사진가들의 작품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아울러 '올 댓 포토북(All that photobook)'에서는 여성사진가들의 사진집을 집중 소개한다.



### 주제전 참여 작가 2 카테리나 벨키나(Katerina Belkina)

러시아 출신으로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심리를 탐구하고 시각화함으로써 다양한 감정의 조각들을 꼬집어내는 작업을 한다. 2007년 모스크바의 권위 있는 킨단스키 프라이즈 후보에 올랐고, 2016년 핫셀블라드 마스터스 프라이즈를 수상한 바 있다.



주제전 참여 작가 3 라니아 마타르(Rania Matar)

레바논계 미국 사진가이며, 작가 자신과 딸들의 삶 같은 자전적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 전개한다. 그의 사진에서 신체는 청소년과 중년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두 단계에서의 여성을 나타낸다. 가벼운 시선, 손짓, 신체 언어의 미묘한 변화, 신체적 친밀감 (혹은 신체적 결여) 등은 그의 사진에서 중심이 된다. 여기서 보여주는 개인의 시선과 감정은 한 화면 속에서 복잡한 모녀 관계를 보여주며, 개인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전달한다.



주제전 참여 작가 4 라이언 슈데(Ryan Schude)

미국 출신의 라이언 슈데는 특정한 이야기를 하나의 이미지에 담기 위해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 무대를 연출하거나 실제 삶의 특정한 장면을 구성해서 이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그는 실제 그의 가족 구성원들과 그들의 삶을 화면에 그대로 담아냄으로써 거대한 시각적 효과와 함께 가족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